

“휴가철 시티투어버스로 남도여행 즐기세요”

광주·전남지역 남도한바퀴 등 41개 코스 운행 주요 관광지 순회...여행객 ‘맞춤형’ 편의 제공

광주·전남 지자체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고 즐겁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시티투어버스를 운행, 남도 여행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를 기점으로 전남 2-3개 시군의 관광지 5-7개를 경유하는 광역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

퀴가 21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고흥, 강진, 해남, 8개 시군이 지역 관광지를 순회하는 시티투어 19개 코스를 구축하고 있고, 광주시는 시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순환형 시티투어를 운행 중이다.

남도한바퀴는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에 맞게 코스를 개편, 화-금요일 매일 2개 코스, 토·일요일 각 9개 코스를 운영한다.
섬 탐방 코스로 여수 금오도, 고흥 연흥도, 거금도,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코스, 여름날 야경을 즐기는 야경코스, 1박 2일 투어 등 다양한 여행의 묘미를 제공하고 있다.
목포 시티투어는 주간과 야간 2개 코스다. 주간코스는 유달산, 삼학도, 갯바위 등, 야경코스는 북항해센터, 빛의 거

리, 춤추는 바다분수 등이다.
여수 낭만버스는 6개 코스다. 천장이 개방된 2층버스가 주간과 야간 코스로 운영,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고, 이외에도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2개, 토요일 유적, 야경 코스가 있다.
순천 시티투어는 선암사, 낙안읍성,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를 운행하는 선암사 코스, 송광사, 낙안읍성,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를 운행하는 송광사 코스, 도심을 순회하는 도심순환 코스(1일 10회)로 이뤄졌다.

광양 시티투어는 토요일에 무지개다리, 구룡산전망대, 느랭이골별빛축제장을 경유하는 야경투어 코스가 있고, 나주는 토요일에 국립나주박물관, 황포돛배, 불회사, 천연염색박물관을 운행한다.
고흥시티투어는 토·일요일 순천역을 출발해 거금도, 김일기념체육관, 녹동항 등을 경유하며, 강진은 토요일에 마량놀이시장, 청자판매장 등을 운행하는 청자코스과 일요일에 다산초당, 가우도 등을 운행하는 다산코스가 가동된다.

해남 시티투어는 토요일에 고산윤선도유적지, 두륜산케이블, 땅끝관광지, 우수영관광지, 우항리공룡화석지를 운행한다.
광주시도 매주 토, 일요일 주요 관광지를 1일 9회 순환하는 빛고을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투어코스는 국립5·18민주묘지,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이다.
최성진 전남도 관광과장은 “시티투어 버스 코스가 광주와 전남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코스로 마련돼 있다”며 “올 여름 휴가는 광주·전남에서 문화관광해설사가 안내하는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해 알찬 휴가를 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icm@kdaily.com

4대강 사업 이후 영산강 변화 들여다본다

광주전남연구원, 오늘 ‘복원 방향·대응과제’ 토론회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4대강 재자연화’가 채택되는 등 4대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4대강 사업 이후 영산강의 변화와 과제를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과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전남환경운동연합(대표 백성호)은 25일 오후 2시 광전역 상생마루에서 ‘4대강 사업 이후 영산강 변화와 과제-영산강 복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9일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

대 국정과제 중 ‘4대강 재자연화’와 연계해 영산강 수질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다.
특히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지시한 4대강의 6개보 상시 개방, 물관리 일원화 등 물관리 정책의 대전환기를 맞아 남도의 젖줄인 ‘영산강’의 복원 방향 및 지방정부의 대응 과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조선대학교 이성이 교수가 ‘4대강 사업의 문제와 대안’, 목포해양대학교 신용식 교수가 ‘영산강 수생태 실태와 제언-녹조문제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정순수 교수가 ‘하구둑

개선을 통한 영산강 살리기 제언’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펼친다.
지정토론회는 국제기후환경센터 임낙평 대표이사가 사회를 맡고, 전남대학교 박철웅 교수, 광주전남연구원 김중일 실장,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 광주시 김석준 과장, 전남도 김인수 과장,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종합토론회에는 광주시, 전남도, 영산강유역 시·군 등 유관기관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등 민간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해 영산강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 방향 등을 논의한다.
/임재만 기자 icm@kdaily.com

광주 자율방재단연합회 청주 수해복구 ‘구슬땀’

광주시 자율방재단연합회(회장 조광환)는 24일 오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성읍을 찾아 복구작업을 벌였다.
이날 작업에는 지역자율방재단 임원 및 단원 40여명이 참여해 지난 16일 기록적인 폭우로 쓰러진 비닐하우스 잔재 제거와 오물, 진흙으로 가득했던 현장을 복구하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한 방재단원은 “무더운 날씨 폐허가 된 비닐하우스를 보고 놀랐다”며 “수해 복구 지원을 통해 청주 시민들의 걱정이 조금이나마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조광환 시 방재단연합회장은 “폭우 피해지역이 빠르게 복구, 안정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기자 kim77@kdaily.com

中 상하이시 펜싱팀, 전남서 전지훈련

한중관계 단절 속 의미 더해

전남도는 중국 상하이시 펜싱팀 선수단 34명이 중국에서 4년마다 개최되는 2017년 중국인민운동회 메달 획득을 위해 지난 23일까지 15일간 전남도종합체육관에서 강도 높은 합동전지훈련을 하고 돌아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동전지훈련에서는 강원도청, 성남시청, 인천 중구청, 호원대학교, 우석대학교 펜싱팀 선수 55명도 함께 했다. 상하이시 펜싱팀이 전남에서 훈련을 한 것은 지난 2004년부터 전남도 펜싱팀을 지도하고 있는 김용을 감독 때문이다.
김 감독이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펜싱 사브르 금메달리스트 김지연을 지도하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은 하이시엔 상하이시 펜싱팀 단장이 김 감독을 2013년 8월 중국으로 초청해 선수지도를 부

탁했고, 그 지도를 받은 선수가 중국인민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극적인 드라마가 만들어져 지금까지 서로 왕래하며 깊은 인연을 쌓아오고 있다.
도는 최근 한중관계 교류가 중단되고 어려운 여건임에도 한국을 방문한 상하이시 펜싱팀을 위해 환영 만찬행사도 치렀다.
정순수 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이번 합동전지훈련이 두 나라 스포츠 교류 활성화의 계기가 됐다”며 “김 감독과 하이시엔 단장이 맺은 소중한 인연이 후배선수들에게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특히 이번 행사가 펜싱뿐 아니라 전 종목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시엔 단장은 “이번 훈련이 실력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전남에서 전지훈련을 계속 하겠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임재만 기자 icm@kdaily.com



24일 오후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녹천 고광순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2017년 전남 종가대회’에 참석한 이개호 국회의원(왼쪽 세번째)과 김갑섭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왼쪽 네번째)이 박수를 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종가회 ‘종가문화 활성화’ 모색

사진전시회 개최·타 지역 교류 방안 등 논의

전남도는 24일 담양 장흥고씨 의열공과 종택 녹천 고광순 의사 기념관에서 종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남 종가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형식(해남윤씨 어촌은공파 19세손) 회장을 비롯해 전남 종가대표 60여명과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김갑섭 행정부지사,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남도고택 체험프로그램 운영 성과와 관광콘텐츠로의 발전 방향, 전남 종가의 삶과 맛을 살려볼 종가문화 사진전시회 개최 방안, 다른 지역과의 종가문화 교류를 위한 경북 종가포럼 참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종가 대표들은 종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가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계승하는 동시에 현재적 가치를 높이고, 미래 비전을 확립해야 하며, 종가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장흥고씨 의열공과 고영준 종손과 서해수 남도학연구소 대표, 김덕진 광주고대 교수가 현 종가의 내력과 조선말기 호남의병의 선봉장이었던 녹천(鹿川) 고광순(高光海) 선생의 활동상을 소개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충(忠)과 의(義)를 실천한 선조들의 호국정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회장은 “그동안 종가문화 현황조사 보고서 발간, 남도고택 체험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둬 전남 종가문화의 발전가능성을 확인하게 됐다”며 “하반기에는 종가문화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고, 다른 지역과 종가문화 교류를 확대해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종가문화가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올해부터 종가문화 현황조사 보고서 발간, 남도고택 체험프로그램 운영, 종택 보수정비사업 등 종가문화 활성화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며 “2018년에도 종가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성수 기자 star555@kdaily.com

SKY (주)스카이 장례식장
문의: 062) 951-1004 (천사)

품격있는 시설!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차이
부담없는 장례비용!!

1,000여대 동시 주차 / 수완동 자동차 매매단지 입구